

국민의힘 계엄 사전 인지 수사 추경호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핵심부가 계엄 논의 초기부터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3일(한국시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대상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 3월말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논의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장은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 9일부터 집행일 전날까지를 대상으로 발부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여당 원내대표가 계엄에 직접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계엄 관련 질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기간을 넓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면 수정했을 것"이라며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특검 측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임의제 출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도 함께 제시했다.

수사팀은 원내대표실에 남아 표결에 불참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의원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이 그 사례다. 박 특검보는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어떤 결정이 오갔는지 중요한 참고사항"이라며 추후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지아 현대차 공장서 475명 체포 국토부 "불법 고용-연방법 위반 혐의 이민 단속"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실시돼 475명이 체포됐으며 다수는 한국 국적이라고 5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진행됐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 국경순찰대,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연방총기·폭발물단속국(ATF), 국세청(IRS) 등 여러 연방 기관이 참여했다.

ATF 애틀랜타 사무소는 소셜미디어에 단속 장면을 공개하며 초기에는 450명이 구금됐다고 밝혔으나, 국토안보부는 최종적으로 475명이라고 확인했다.

단속이 이뤄진 곳은 주역사상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로 꼽히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생산 공장과 인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다. 현대차는 76억 달러를 투자해 지난해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약 1,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인근 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됐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불법 고용 행위와 기타 심각한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ICE 대변인 린지 윌리엄스는 브라이언 카운티 서베너 서쪽에 위치한 3,000에이커 규모 부지에서 단속이 진행됐으며,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 주요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현장에 직원을 파견했으며, 주미 한국대사관에 "한국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한국 투자기업의 경제 활동과 한국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생산단지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미국 이민당국 직원들이 들어타쳐 통제하는 모습. 사진=SNS

조지아주 경찰은 현대차 부지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했고, 주 공공안전부는 연방 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노란 안전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가운데, 전술 조끼에 'HSI' (국토안보수사국) 문구가 새겨진 요원이 "우리는 국토안보부다. 현장 전체에 대한 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다. 즉시 모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농장, 건설 현장, 식당, 자동차 정비소 등에서 잇따라 단속을 벌여왔다.

현대차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해 내년 개장을 목표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합작사 HL-GA 배터리 컴퍼니는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사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 본사는 이번 단속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검 권한 강화 '더 센 특검법' 통과

국회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고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4일(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용민·전용기·이성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안 등을 병합해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번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린 것이다. 기존에는 특검이 자체적으로 30일 연장하고, 이후 대통령 재

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검이 30일씩 두 차례(총 60일)를 자체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로 30일을 더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인력도 증원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계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은 의무적으로 중계하고, 나머지 재판은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용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재판 기록을 사초처럼 남겨 다시는 대통령 친위 쿠데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장원호 발 전문 병원

(발 및 발목 치료 족부 전문 병원)

Ryan Chang, DPM

분야

- 발 통증, 통풍, 평발, 발목 골절
- 스포츠 관련 발 & 발목 부상, 인대 손상
- 관절염, 발가락 변형, 족저근막염
- 무좀, 내성발톱, 사마귀
- 발 교정용 & 맞춤형 깔창 처방
- 발목 또는 발가락 기형 수술
- 당뇨관련 발치료, 무지외반증
- 소아족부질환, 소아 안짱다리 교정

— 발 관련 스포츠 부상 관리 및 수술 전문 —




레이저
Class IV Laser

최첨단
체외충격파

• 특별 진료 •

최첨단(체외충격파, 레이저)기기로 통증, 사마귀, 발톱무증 치료

각종 보험 취급

PPO: United Health Care, Anthem, Cigna, Aetna, Blue Cross Blue Shield
HMO: Seoul Medical Group, Center IPA, Prospect (Daehan) Medical Group

T.949.484.4405

62 Corporate Park Suite #235, Irvine, CA 92606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